



# 제2공항 동굴/습골 조사결과

작년 제1차 동굴·습골조사에 이어 올해 제2차 동굴·습골조사를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동굴·습골조사에는 우리 단체 자원활동가들이 특별히 많이 참여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작년 제1차 동굴·습골조사에서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밝힌 동굴지질들을 확인하면서,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습골을 61곳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동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서 국토부와 제주도에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올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로부터 조류조사와 동굴·습골조사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받아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감지되고 있으나, 동굴·습골조사는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작년에 부족했던 동굴·습골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동굴·습골조사단장으로 조사를 총괄 진행하였던 우리 단체 홍영철 공동대표가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환경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우리 단체 자원활동가들은 올해 역시 가장 많이 조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거대한 입구를 가진 동굴을 발견하였고, 작년 6개의 습골에 더하여 75개의 습골을 추가 발견하여 모두 136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동굴입구는 '칠낭케'라는 이름을 가진 동굴로 '칠낭'은 옷나무를 일컫는 제주어입니다. '옷나무가 많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칠낭케'는 제2공항 예정지와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굴입구가 매우 커서 지름이 30m 정도이고 깊이가 5m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문헌에 나와있는 동굴들은 예정지 인근 지역까지 조사했으나, '칠낭케' 처럼 문헌에 없는 동굴은 조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칠낭케'는 주민의 제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았거나, 1차 동굴·습골조사 후 우리가 제안했던 공동조사를 수용했다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럴 의지가 없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부실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칠낭케' 발견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성산읍은 제주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 반면, 하천이 없는 곳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없으면서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이 물에 잠겨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와 당근 등 농사가 잘되는 이유는 빗물이 습골을 통해서 지하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토부의 계획대로 이 지역의 습골을 모두 메워버린다면 500만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이 불투수층이 되면서 지하수 함양이 안 되고, 주변 지역은 극심한 물난리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2차 동굴·습골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토부와 제주도에 다시 한번 공동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의 오보를 이용해 우리가 마치 예정지 밖의 동굴을 예정지 안에 있는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뉴스에 올랐고, 다음과 네이버에 메인뉴스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 국회 추경에서 제2공항 기본설계예산 320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공동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습골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기어코 공동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부실·거짓검토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동굴·습골조사 결과



## 동굴 발견 칠낭케 예정지로부터 불과 250m 이격



## 활동 이모저모

- 3월**
- 3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 3월 3일 윤찬수 기자회견 방안 마련 과제와 착수보고회(홍영철 공동대표)
- 3월 5일 웨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
- 3월 9일 JIBS 인터뷰: 4, 15층선 이수 관련
- 3월 10일 [2020 층선프로젝트] "국회의원 후보에게 질문있으신가요" 홍보시작
- 3월 1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소식지 발송(804부)
- 3월 13일 휴식년제오름모니터링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 3월 16일 웨손오름 모니터링: 용늪이 오름
- 3월 18일 홈페이지 제작업체 내방: 제작관련 논의
- 3월 19일 [논평] 송재호 예비후보는 민연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
- 3월 20일 (세계물날에 따른 성명) 원희룡 도정 물관리 성적표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보도자료 발송
- 3월 2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 3월 23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 회의
- 3월 25일 "국제자유도시가 뭐예요?"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3월 26일 정책제안내용 및 질의서 발송: 국회의원 후보자 전체 대상
- 3월 3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 3월 31일 참여환경연대 정책제안 내용 보도자료 발송
- 4월**
- 4월 2일 드림타워 교통량 모니터링 (오후)
- 4월 3일 4·3 추념일: 평화공원 방문 및 현화
- 4월 6일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 4월 7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 4월 9일 드림타워 교통량 모니터링 (저녁)
- 4월 9일 [논평] 사회적거리두기 먼저는 원도정, 무엇이 원도정을 급하게 하는가? 4·3의 봄날 세월의 기억 준비회의
- 4월 10일 참여환경연대 정책질의 결과보도자료 발송 (회원기행) >> 4·3 산전기행
- 4월 1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습골조사] 진행
- 4월 1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습골조사] 진행
- 4월 1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습골조사] 진행
- 4월 1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습골조사] 진행
- 4월 16일 4·3의 봄날, 세월의 기억 행사
- 4월 17일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현장수업을 위한 현장당사
- 4월 19일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제주의 수수' 1강 진행
- 4월 20일 회원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
- 4월 21일 [기자회견] 영리병원 복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웨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
- 4월 22일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관련 현장당사
- 4월 25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관련 현장당사
- 4월 27일 '머채앗숲길, 같이 걸을까?' 웨손오름 모니터링: 용늪이오름 / 제2공항 예정지 조류조사
- 4월 29일 [기자회견] 제2공항 예정지 제2차 동굴·습골조사 결과발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 [기자회견] 영리병원 복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의료가 상품'이 되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영리병원의 불빛, 4월 21일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의 존폐가 판가름 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그룹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사도 영리병원을 정리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공공병원' 이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영리병원이 아니길요.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습골조사 진행(4.11-15)



지하수 함양과 홍수에 방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제주땅의 습골 '습골'. 우리단체 활동가들은 4월 11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제2공항 예정부지 동굴·습골조사에 함께했습니다. 밭 사이사이를 가로지르며, 나흘간 찾은 습골은 모두 75곳. 1차 조사결과와 합쳐 총 136곳의 습골이 제2공항 예정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다 불과 250여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된 동굴 칠낭케까지. 제주의 자연환경은 물론 항공안전을 생각해도 이곳에 제2공항은 어불성설입니다.

### 드림타워 교통량 모니터링(4.27)

어디서든 번쩍번쩍, 국제자유도시의 상징 '드림타워'가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교통체증부터 하수문제까지 다양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올 한해 드림타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도민들과 함께 기록하는 활동을



이러할 계획인데요, 그 첫 단추로 4월에 드림타워 주출입구 도로에서 교통량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드림타워 문제 시민연구팀을 꾸려 대응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신청 gogo!!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제안(3.30)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제도화하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4월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참여민주주의 강화가 제안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후보 대부분이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 도민 공약화/발안제 법제화에 공감하며, 정책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해당 제안의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_+

### [회원기행] 4·3 산전기행(4.10)



"여기까지 오는 데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덕구 산전길을 따라오르며, 당시 산사람들의 발걸음을 상상하니 추위와 고동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제주의 4월을 맞아 백가운 제주다크투어 대표의 안내로 회원들과 함께 72년 전 산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았는데, 그 길을 걸으며 그때의 삶의

생각하고, 사리물레에서는 김경훈 시인의 시를 낭송하며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4·3항쟁 73주년이 오기 전, 특별일이 개정되어 4·3 영령들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 [기억모임] 4.3의 봄날, 세월의 기억(4.16)



4·3항쟁 72주년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마주한 이곳 제주. 세월호가 도착하기로 했던 6년 전 제주였기에 더욱 잊을 수 없는 4월 16일. 우리단체는 제주다크투어와 함께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안전사회와 재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다 저런 위험한 곳에 갔을까.." 재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와 차별을 배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

### [걷기모임] "머채앗숲길, 같이 걸을까?"(4.25)

"숲에서 재밌게 놀며, 건강해질 수 있구나!!" 데이터에 근거한 걷기방법 배우고, 숲길도 함께 걷는 '머채앗 숲길, 같이 걸을까?' 첫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걷기단계, 걷기 전 혈압과 몸무게, 허리둘레, 체온을 측정 후, 걷기 이후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걷기 후, 1kg이나 감소한



참가자가 있었답니다. 단기적 효과였지만 걷기방법의 변화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다음 모임은 5월 23일 진행됩니다. 함께해 주세요? +\_+

### 웨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4.2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별오름'과 '용늪이오름'의 오름훼손 모니터링은 꼭 이어집니다. 4월21일에는 새별오름을 찾았는데요. 탐방객의 답압과 빗물로 인해 훼손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 설치했던 경사구간의 방형구 위치에 모래주머니가 놓여있어 방형구 위치를 재조정하고, 정상부에도 모니터링 지점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사구간 모래주머니는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인데요. 모래주머니와 주머니 사이 공간에 방형구를 설치해 추이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제주의 수수수

우리단체의 힘!!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심화과정이 쌤들의 열정을 타고 무사히 순항중이다. 올해는 제주의 물(지하수, 용천수, 하수)을 테마로 교육을 듣고, 팀을 구성해 교육프로그램까지 기획/실행해 보게 되는데요. 고기원 박사의 지하수 강의부터 홍영철 공동대표의 하수 강의까지,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쌤들을 보며, 또 한 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쌤들, 끝까지 파이팅~!!



제1강. 제주의 지하수 (고기원 박사님) 제2강. 제주의 하수 (홍영철 공동대표) 서부지역 현장당사 제주하수처리장 현장당사